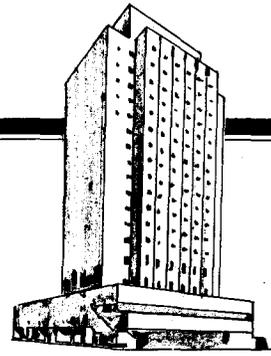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전국 부화장에 조사협조 당부

농림수산부는 양계산업의 안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이영래 축산국장명의로 「병아리 통계조사사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국 2백31개 부화장에 보냈다.

수요에 알맞는 적정사육수수를 생산키 위해서는 부화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병아리의 정확한 통계가 조사되어야 하며 이 조사결과가 홍보되어야 부화업자들이 적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해 입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시·군이나 생산자 단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조금제도 미국시찰단 출국



전동용



오세정



김영진



박태권



김진영



이태영



허신행



박문성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와 미국농무성이 주관하여 미국 축산업계의 자조금제도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7월24일 전동용 대한양돈협회회장을 단장으로 각 정당 농수산분과위원 및 축산관련자 9명이 김포공항을 출발, 미국으로 떠났다.

이번 시찰단들은 현재 미국 축산업계에서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조금제도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축산업계에 반영할 계획인데 미국 체류기간은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시찰에 참여한 인사의 명단이다.

전동용(대한양돈협회 회장)

김진영(민정당 농림수산위원)

김영진(평민당 농림수산위원)

박태권(민주당 농림수산위원)

오세정(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한국가금학회 회장)

이태영(축협중앙회 이사)

허신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성(농림수산부 초지사료 과장)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장)

■ 91년부터 사료공장 신규 허가

농림수산부는 오는 91년부터 배합사료 제조업 신규허가를 1단계·2단계로 구분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1단계 조치로 축협 및 지역축협, 계열화생산사업단지, 전문 배합사료 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기존업체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충남 천원지역 닭뉴캐슬병 발생

충청남도 축정당국에 의하면 금년들어 충남 천원지역에서 닭뉴캐슬병이 육계농장에서 발생하여 양계농가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당국은 양계농가에게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확산을 방지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 관세율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관세조정 농산물분과위원회(위원장 허신행)는 지난 7월13일 무역회관 회의실에서 관세율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현행 관세의 중심세율을 20%에서 5년 이내에 8%로 내리려는 목표아래 진행되어진 관세율 개편작업 중 1,2차 관세율개편협의회에서 조정한 관세율 기본방안은 가금류는 현행 20%에서 93년까지 8%로 가금육과 설육, 조관과 난황은 30%에서 20%로 관세율 인하방침이다.

대한양계협회 임덕성사무국장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양계산업은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자금의 부족, 유통구조의 불합리, 주기적인 과잉 과소, 생산과 소비의 계절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진폭이 심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반면 양계산업은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중간생산자재가 경쟁국에 비하여 정책적 모순으로 비싼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이 외국 산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세를 올려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행수준은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 개최

—신임 회장에 최준구씨 선출—



최준구 회장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가 지난 7월26일 오후2시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회는 ▲회장단 선출 ▲회비징수문제 ▲난가고시제도 개선 등을 의제로 다루었는데 새 회장에는 최준구(본회 광주채란 분회장, 본회이사)씨가 선출되었으며, 수석부회장에

김경배씨, 부회장에는 정성조씨, 최상호씨, 허돈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회비는 월 최저 3만원으로 하되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 금액 조정을 일임하였으며, 난가고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조절위원회에 생산자들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폐회하였다.

■ 전북양계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정

(가칭)전북양계조합 창립총회(위원장 이기동)를 8월18일 개최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원자격을 산란계 5천수, 육계1만수로 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출자한도에 있어서도 5천수 사육농가 15만원(1구좌 3천원), 1만수 이상은 6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가입신청을 8월10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 축협, 교관요원 교육 실시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농어촌 지도자교육을 위해 지난 7월20일 '88년도 하계 교관요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88년도 축협운영 방향과 89년도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축산물 유통개선과 축산관측, 축산인들의 자세에 대한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 농경연 강정일씨 연구위원에 임명

지난 6월1일 수석연구원 강정일 박사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강정일 박사는 서울농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 미국 캔터키주 럿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82년9월부터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해왔다.

■ 제1회 양계영양기술 workshop 개최

—고려대에서, 양축가 관심도 높아—

양계산업의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계영양기술워크숍이 한국가금학회 주최로 지난 7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고려대학교 지극만교수는 지방의 유효에너지(Effective Energy)를 활용하여 사료를 배합하면 에너지용 곡류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한국양계

연구소 김영환소장은 케이지 한칸당 수수는 경기에 따라 2~3수로 하며, 수당 급이면적은 10cm이상, 수당 생활면적은 380~450cm²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의후에 토론시간을 이용하여 현장감 있는 실무와 학문적 이론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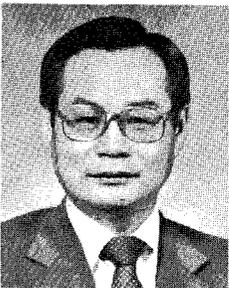
■ 한국축산학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에 김강식 차장 선출—



김강식 회장

한국축산학회는 지난 7월23일 전남대에서 제44회 학술발표회를 겸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농촌진흥청 차장인 김강식 박사를 선출함과 함께 수석 부회장에 서울대 농대 박영일 교수와 제2부 회장에 충북대 배대식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 한국영양사료학회 세미나 개최



한인규 회장

'88년도 전반기 한국영양사료학회(회장 한인규) 기술강습회 및 학술세미나가 오는 8월18일~19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일정은 18일에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19일에 학술발표회 및 총회와 세미나가 열리는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TEL(0331)43~3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88.3/4분기 축산관측 협의회 개최

축협중앙회는 지난 7월22일 '88년 3/4분기 축산관측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산란계(종계 포함)는 1년전 대비 5.3%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최근 변동요인으로는 ▲사료가격 ▲대체육가였으며, 경기지역의 변동요인으로는 올림픽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노점상철거 ② 외식격감(TV 시청시간연장) ③ 국내관광특수용 감소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난가는 9~10월에 회복후 약세로, 내년 봄철에 회복을 예측하였다.

■ 축산물 수입반대 쫓기대회



▲5천여 낙농육우인들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쫓기대회를 가졌으나 끝내 쇠고기 수입은 재개되고 말았다.

5천여명의 낙농육우인들은 국회농수산위원회가 열린던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사적인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개최한 이날 쫓기대회에서 양축가들은 정부가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대책마련없이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대회가 진행되어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전의 선행과제로 1. 쇠고기가격 안정대 사업 제도화 2. 송아지 가격안정 사업제도 3. 축산물 수급조절 상설기구 설치 4. 배합사료제도 개선 5.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6. 축산기자재 관세 부과세 면제 7. 국공유림 초지조성후 임대 또는 분양 8. 상호금융대출금 금리인하 등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 양축가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9월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발표하였다.